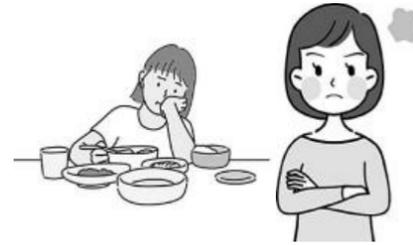


## 반찬투정



가정주부로 사는 삶에는 여러 가지 희로애락과 굴곡이 있는데 내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뭐니 뭐니 해도 가족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다. 매일같이 “오늘 뭐 먹지?” 고민하는 일은 내게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이며 나를 생각해서 준비한 메뉴가 환영받지 못하면 출품한 작품을 거부당한 아티스트처럼 낙심하게 된다. 하물며 우리 집 고양이들도 입맛이 뚜렷해서 자기네가 좋아하지 않는 사료는 입에도 대지 않으려고 하니 내 어찌 모든 식구들의 입맛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그런 내가 요즘 매일 저녁 기본 2번, 심할 때는 4번 씩 저녁상을 차리느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식구들의 귀가 시간이 모두 달라서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저녁 6시까지 학원에 가야 하는 셋째가 5시 30분쯤 일찌감치 저녁을 먹는다. 그리고 저녁 6시 넘어서 귀가하는 막내를 위해 저녁을 차리고 그다음은 8시 무렵 귀가하는 둘째가 저녁을 먹는다. 이 사이에 남편의 귀가 시간이 맞으면 누군가와 같이 식사를 하고 아니면 한번 더 저녁을 차려야 한다.

물론 뭐 대단한 요리를 하는 것은 아니다. 나름 단백질, 탄수화물과 야채 밸런스를 생각해서 메뉴를 짜긴 하지만 대단치 않다는 것은 인정한다. 반찬을 구매하기도 하고 밀키트를 적극 활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무리 간단히 차린다고 해도 한 끼에 몇 번씩 상을 차리는 일은 별로 즐거운 일은 아니다. 그나마 맛있게 잘 먹어주더라도 하면 다행인데 “에이 나 그

거 별문데? 다른 건 없어?” 와 같은 반응을 보일 때면 정말 기운이 쭉 빠진다.

어제저녁에도 딸이 내 신경을 건드렸다. 이날 저녁도 세 번째 상차림이었고 조금이라도 맛있게 먹이겠다고 고기도 새로 구워 주었다. 반찬으로 소고기와 닭갈비가 올라왔는데 딸이 밥을 먹기 시작하자마자 인상을 찌푸렸다. 소고기는 너무 질겨질까 봐 살짝 덜 익혔고 닭갈비에 오도독뼈가 좀 있었는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다.

“엄마, 나 그냥 김 주면 안 돼?” 그러는데 “어우 그냥 좀 먹지..... 내가 식모냐? 네가 갖다 먹어!” 쏘아붙이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인정한다. 엄마답지 못했다. 웃으면서 김을 가져다주지는 못할 망정 ‘식모’ 발언까지는 하지 않았어야 했다. 너무 웅졸했다. 실제로 딸이 나를 정말 식모 취급한 것은 아닐 것이다. 나를 식모처럼 생각한 것은 나 자신일 뿐. 하지만 저녁상을 차릴 때부터 이미 나는 지쳐있었던 것 같다. 아니 단 순히 그날 그 저녁상 때문만은 아니었다. 자녀 중 처음으로 사춘기에 접어든 딸 때문에 지난 몇 주 마음이 힘들었던 까닭이었을 거다.

“너도 너 같은 딸 낳아 길러봐라.” 중1 때였나 보다. 엄마와 싸우고 뒤돌아 내 방으로 들어가는데 엄마의 그 날카로운 외침이 날아와 내 가슴에 꽂혔다. 이것이 결코 축복은 아니었다는 것을 내 딸을 키우면서 확실히 알게 되었다. 중1 딸을 키우며 힘들 때마다 이따금씩 엄마의 외침이 들려

온다. 하.....!

어제도 딸의 반찬투정에 뜬금없이 눈물을 흘리다가 엄마의 밥상을 떠올렸다. 엄마의 밥상에 엄마의 정성과 사랑이 빠졌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그때 내게 엄마가 자식을 위해 밥을 차리는 것은 그저 당연한 일이었을 뿐이고 그래서 뭐 하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까탈스럽게 꼬투리를 잡고 투정을 부렸다. 오늘은 너무 잔데? 너무 매워서 못 먹겠어. 지난번 그 맛이 아니야. 오래된 거 아니야? 나 더는 못 먹겠어. 배불러. 조금만 줘.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내뱉었던 모든 말들이 지금 부메랑이 되어 내게 돌아오고 있는 중이다.

칼럼을 쓰고 있는데 3학년 막내가 뒤로 지나가다 말고 모니터를 뚫어지게 보더니 “반찬투정? 우리랑 관련 있는 건가? 그럼 당연히 주인공은 나겠지?” 한다. 그래, 이 녀석아! 제발 그냥 좀 주는 대로 먹어라!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 아 1.5세 아줌마는 '재미교포1.5세 아줌마' 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주택, 상가, 사업체 투자매물”  
무엇이든 맡겨 주십시오.  
아이비가 하면 틀림없습니다.



### 드림포올 프로그램 자격조건 (Borrower Requirements)

- First Time Home Buyer:** 처음 집을 구매 하시는분 / 최근 3년동안 집을 소유하지 않으신 분
- Maximum Income Limit:** 융자 받는 사람의 소득이 기준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Orange County (\$235,000) / LA County (\$180,000) / 기타지역 (확인하기)
- Minimum Credit:** 680 최소 크레딧 점수가 6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All borrowers must occupy the property as the primary residence.**  
융자 받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구매 완료날짜로 부터 60일 이내에 구매한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하지 않는 co-borrowers 혹은 co-signers는 불가능합니다.
- 주택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 CalHFA에서 요구하는 홈바이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첫 주택 다운페이  
20% 까지 정부 무이자  
대출 보조금  
지원 중

지금 전화주세요! > 아이비 949.501.8555

주택/ 상가/ 사업체/ 투자매물 전문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 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 \* 새집 분양! 여러지역 새집 매매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투어, 입주하실때까지 자세히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 \* 첫 방문시 저와 함께 가셔야 더욱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며, 매입 거래시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아이비  
VICE PRESIDENT  
Member of NAR, CAR, PWR  
CalDRE#: 02086695

LEAH IVY CHANG REALTOR  
LeahChangRealty@gmail.com

949.501.8555

Buena Park: 6561 Beach blvd  
Irvine: 8 Corporate Park #220